

<조사보고서>

2006년 中國經濟와 對中 輸出環境 評價

2005. 11

무역연구소
동향분석팀

작성자	양 평 섭 (5341)
-----	--------------

【 목 차 】

【 요 약 】

I. 對中 輸出環境 決定要因	1
1. 最近 對中 輸出 現況	1
2. 對中 輸出 決定要因	3
II. 中國經濟 및 對中 비즈니스 리스크 展望	6
1. 2006년 經濟政策 方向	6
2. 2006년 中國經濟 展望	7
3. 産業生産 動向과 展望	17
4. 現地法人의 經營 리스크 評價	21
III. 對中 輸出에의 影響과 展望	26
1. 對中 輸出與件 評價	26
2. 對中 輸出에의 影響과 展望	27
3. 示唆點	29

【 요 약 】

《對中 輸出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 금년 대중 수출은 전년에 비해 증가율은 하락하였으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 1~10월중 대중 수출은 전년동기비 24.8% 증가한 510억 달러

- 품목별로는 대중 수출이 양극화 현상을 보임.

o 대중 수출 호조 품목 : 전자부품(반도체, LCD, TV용 평판디스플레이, 기구부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영상기기, 기초유분, 플라스틱제품 등

o 대중 수출 부진품목 : 휴대폰 및 부품, 컴퓨터 및 부품, 철강판, 합성수지, 석유제품 등

□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국내 외자기업의 생산 활동, 중국의 수출, 중국내 소비 수요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됨.

- 대중 수출의 72.8%가 중국내 외자기업向 수출이며, 따라서 중국내 외자기업의 생산 활동(특히 한국계 기업)이 중요한 변수임.

- 대중 수출의 80%를 중간재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수출 특히 중국의 가공무역의 성장 여부에 영향을 받게 됨.

o 한국의 대중 수출의 51.%가 중국내 가공무역用 수출임.

- 중국내 투자와 소비 등 국내경기가 활성화되는 경우 생산을 유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도 증가하게 될 것임.

《2006년 中國經濟 展望》

□ 2006년 중국정부는 成長과 均衡의 동시 달성을 위한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一穩一擴(투자규제를 통한 생산과잉을 해소하고 국내소비를 확대)

□ 2005년 9.4%, 2006년 8.5~9% 범위내의 성장률 유지 전망

- 4/4분기 중 성장률이 소폭 둔화된 9%내외를 유지함으로써 2005년 중국의 연간 성장률은 9.4%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11.5계획의 초년으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 추진이 본격화되고, 거시 경제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은 2005년에 비해 완만한 감속 기조 유지

- 국내소비는 금년(13.0%)과 비슷한 12.5% 내외, 투자는 20% 내외로 2005년(25% 내외) 보다 둔화 전망

- 2005년의 특수한 현상에 따른 수출증대 요인이 줄어들면서 수출증가율은 20% 초반대로 둔화 전망

※ '05년의 위안화 저평가 효과, 국내 재고조정 목적의 수출은 둔화

<중국의 주요경제지표 전망>

		실질GDP	CPI	고정자산 투자	소비재 소매총액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억달러)
2003		9.5	1.2	26.7	9.0	34.6	39.9	255
2004		9.5	3.9	25.8	13.3	35.4	35.8	320
2005	연간p	9.4	2.0	25.0	13.0	30.9	20.0	1,030
	1Q	9.4	2.8	22.8	13.7	34.9	12.2	166
	1H	9.5	2.3	25.4	13.2	32.7	14.2	396
	1-3Q	9.4	2.0	26.1	13.0	31.3	16.1	683
2006p		8.9	2.0	20.0	12.5	22.0	25.1	1,050

* 전망은 주요 기관의 전망치를 기초로 무역연구소 전망

《品目別 市場 動向과 展望》

- 금년 3/4분기 이후 중국내 산업생산 증가율 상승세가 2006년 상반기까지 지속된 후 다시 조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음.

<중국의 주요 품목별 시장동향 및 2006년 전망>

품 목	최근 시장 동향	2006년 전망
컴퓨터 및 부품	- 3/4분기이후 생산증가율 둔화 - 수출 및 국내 판매 호조 - 컴퓨터부품 수입 견조한 증가세	- PC : 국내수요, 수출 호조 - 부품수입 : 증가세 지속
휴대폰 부품	- 휴대폰 : '04년 3/4분기이후 핸드폰 신규 가입자 마이너스 증가율(05년 1-9 16.1% 감소) - 부품수입 증가율 둔화	- 핸드폰 : 내수시장 호전, 수출 증가율 둔화 전망, 공급과잉 해 소를 위한 구조조정 시작 - 부품수입 : 증가율 둔화 전망
직접회로	- 남부지역 전자업체 구조조정 추진 → 국내 IC수요 증가율 둔화 - PC용 디지털반도체 수입 호조, 기 타 반도체 수입 감소	- PC생산 호조, 휴대폰 생산 소폭 증가로 IC 수입증가율 소폭 상 승 전망
석유제품	- '04. 3Q~'05년 원유재고 조정 - 3/4분기 이후 석유제품 생산 증가 율 상승세 반전 - 상반기 석유제품수입 감소	- 석유가공업의 높은 재고증가율 (50%이상) 지속 - 석유제품 수입 소폭 증가
합성수지	- 상반기이후 에틸렌, 합성수지제품 국 내생산 대폭 증가 - 자급도 상승:98년 40%→04년 52% - 04년 하반기이후 수입 감소	- 합성수지 재고 증가세 - 수입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강재	- 3/4분기이후 생산증가율 소폭 둔화 - 수출 확대로 국내 재고 축소 - 강재수입 : '04.2Q이후 감소세 지속	- 국내 투자 둔화에 따른수요 부 진→ 높은 재고증가율 지속 → 철강재 수출 지속 확대 - 강재수입 증가 기대 어려움
자동차 부품	- 2/4분기이후 승용차 생산 증가세로 전환 - 상반기 부품수입액 감소 : -27.1%	- 과잉공급 억제 위한 신규 설비 투자 제한 - 자동차 생산 소폭 증대 전망 - '06. 7 완성차 관세 25%로 인하 로 국산과 수입차간 경쟁 심화 - 자동차부품 수입 증대

《 現地法人の 經營 リスク 評價 》

☐ 중국내 외자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

- 중국정부가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단기 외채 총량을 규제하고, 외자기업의 대출총액을 제한하고 있어 외자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이전가격 조사 강화 가능성

- 중국 국가세무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하고 있다고 보고, 조사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있음.

☐ 외국 국적 종업원의 개인소득세 이슈화 가능성

- 중국정부가 세수원의 확보,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징수 강화를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국 국적 종업원의 개인소득세 문제가 이슈화될 가능성이 큼.

☐ 소득세 단일화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 가능성

- 내년 중 외자기업 소득세율과 중국기업의 소득세율을 단일화(兩稅合一)하는 법안을 상정하여 내후년부터 실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중국의 통일된 기업소득세율은 대체로 24% 내외가 될 것임.

☐ 임금상승,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중국내 코스트 상승요인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조화사회 건설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양로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금 징수 강화
- 중국의 원유 부족에 따른 유류세 인상, 환경오염 관리 강화에 따른 환경관련 비용 증대 등

《 2006년 對中 輸出環境 評價 》

□ 지표상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비즈니스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

< 2006년 대중국 수출환경 평가 >

항 목	주 요 환 경 변 화	대중수출
경제성장	-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긍정적
산업생산	- 주요 산업의 생산 증가율 상승세 - 일부 산업의 재고 조정, 기업 폐쇄, 신증설 규제에 따른 산업생산 위축 - 경쟁심화, 철강 등의 공급과잉 지속 - 한국계 기업의 생산 위축 가능성(수출기업)	부정적 > 긍정적
투 자	- 투자증가율 둔화/부동산 투자의 지속적 억제 - 북경 올림픽 준비 투자 - 11.5 계획 관련 환경, 사회 인프라, 하이테크 분야 투자 증대	중립적
소 비	- 소비세 인하, 소비금융 부활 가능성 - 농민부담 경감, 저소득층 소득증대 조치 -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소비 위축	긍정적
수 출 입	- 점진적인 위안화 추가 절상 (3~4%) - 선진국의 대중 통상압력 지속 * 섬유류 수출 둔화로 진출기업 경영난 - 수출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 가공무역 차질 - 수입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흑자 축소	부정적 > 긍정적
투자기업 경영여건	- 임금인상 요인 증대 :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장 비용 부담 증가 * 15%정도의 임금상승과 기능인력 부족 - 외자기업 세제혜택 축소(15%→24%) 논의 - 에너지 관련 비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관련 감독 강화	부정적
기타 환경	- 對韓 통상압력 중립적 * 중국의 대한 무역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MES 부여로 호전 예상 - 중-아세안FTA 발효에 따른 경쟁격화 - 전력난(25개 省市), 자원난 심화	중립적

《 品目別 對中 輸出環境 評價 》

- ☐ 품목별로는 LCD, 자동차부품, 직접회로(IC), 기계류의 대중 수출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휴대폰부품, 컴퓨터부품, 석유제품, 강재 등의 대중 수출여건은 부정적인 것으로 예상됨.

<2006년 주요 품목별 대중국 수출환경 평가>

품 목	중국 수출	수요산업 생산/재고	중국 투자	중국 소비	대중 수출 증가율
휴대폰부품	+	--	○	○	
컴퓨터부품	○	-*	○	+	
LCD	+	+	○	+	
직접회로(IC)	○	+	○	○	
석유제품	○	-	○	○	
합성수지	○	-	○	+	
철강제품	○	-	○	○	
자동차부품	○	+	○	+	
기계류	○	○	+	○	

주) + 긍정적, ○ 중립적 - 부정적 / * 중국진출 한국업체의 생산 중단

대중 수출증가율 : 30%이상 10~30% 10%미만

- ☐ 2006년 대중국 비즈니스는 ‘기회의 확대’ 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성공률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재고조정, 산업구조 조정 대상 분야의 대중 수출 위축 대비 필요
- 중국기업 또는 중국내 외자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통해 대중국 수출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위안화의 절상에 따른 대중국 수출증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쟁국 통화 대비 원화환율의 안정성 유지 필요

I. 對中 輸出環境 決定要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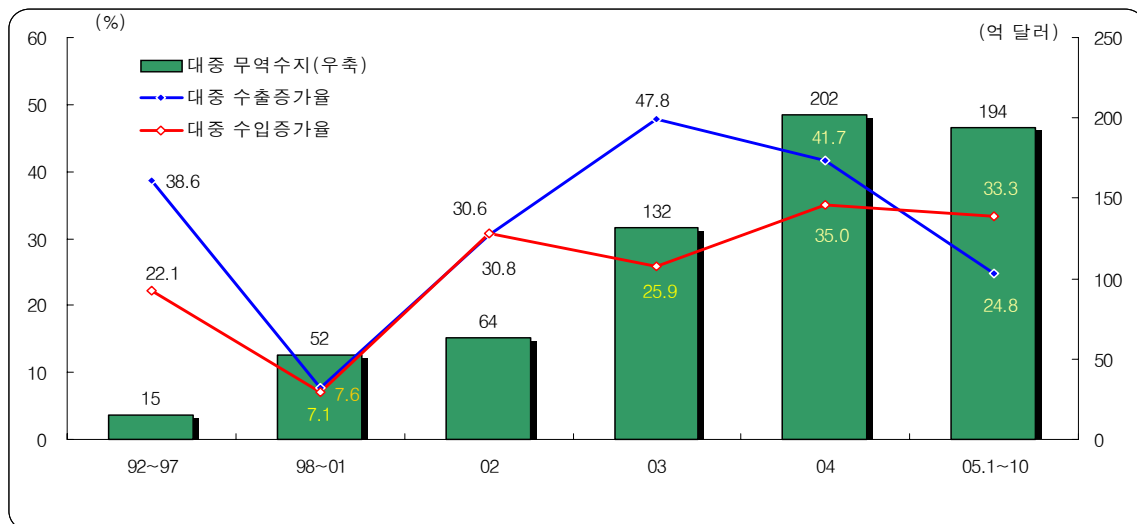
1. 最近 對中 輸出 現況

□ 금년 대중 수출은 전년에 비해 증가율은 하락하였으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 1~10월중 한국의 대중 수출은 전년동기비 24.8% 증가한 510억 달러를 유지, 한국의 대중 수입은 전년동기비 33.3% 증가한 316억 달러를 유지

- 1~10월중 한국의 대중국 수무역수지 흑자액은 194억 달러로 전년동기(171억 달러)에 비해 13.4% 증가

<대중 수출입 동향>



년도	교역액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0	313	38.6	185	34.9	128	44.3	57
2001	315	0.8	182	-1.4	133	3.9	49
2002	412	30.7	238	30.6	174	30.8	64
2003	570	38.6	351	47.8	219	25.9	132
2004	793	39.2	498	41.7	296	35.0	202
2005.1~10	826	27.9	510	24.8	316	33.3	194

자료 : www.KITA.net

□ 품목별로는 대중 수출의 양극화 현상을 보임.

- 대중 수출 호조 품목 : 전자부품(반도체, LCD, TV용 평판디스플레이, 기구부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영상기기, 기초유분, 플라스틱 제품 등
- 대중 수출 부진품목 : 휴대폰 및 부품, 컴퓨터 및 부품, 철강판, 합성수지, 석유제품 등

<주요 품목별 대중 수출 현황>

(백만 달러)

구분	품목명	2004		2005.1 ~ 10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9,763	41.7	50,996	24.8
호조 품목	반도체	3,278	98.3	5,902	127.1
	광학기기	1,791	318.5	3,049	117.8
	자동차부품	1,736	83.9	2,284	69.3
	전선	638	60.5	854	66.9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418	159.3	560	59.9
	기초유분	671	32.9	690	46.6
	기구부품	506	58.8	589	42.7
	전자응용기기	516	128.4	570	36.8
	석유화학합성원료	1,813	68.3	2,051	35.7
	동제품	743	68.3	822	35.6
	플라스틱 제품	645	37.4	677	29.8
	자동차	448	-8.8	524	29.6
	영상기기	557	40	580	29.3
부진 품목	합성수지	3,063	44.6	3,134	21.9
	석유화학중간원료	1,377	57.8	1,338	21.2
	정지기기	525	38.3	531	21.1
	철강판	3,074	28.8	2,954	18.8
	석유제품	2,645	54	2,493	17.9
	기타기계류	758	35.5	705	17.4
	알루미늄	519	35.5	496	16.8
	기타석유화학제품	811	59.7	755	14.8
	음향기기	670	22	624	11.9
	무선통신기기	3,503	12.5	3,105	5.9
	컴퓨터	5,346	45	4,232	-7.7

자료 : www.KITA.net

2. 對中 輸出 決定要因

□ 한국의 대중국 수출상품 구조 이해

- 중국내 외자계기업이 중국의 대한 수입의 72.8%를 차지하고 있음.
- o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72.8%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자계 기업에 의해 수입되고 있으며, 중국의 대한국 수출의 55.5%가 외자계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짐.

< 중국의 대한국 수출입 중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

(억 달러, %)

	대한 수출입		외자기업 수출입		비중(%)	
	수출(A)	수입(B)	수출(C)	수입(D)	수출(C/A)	수입(D/B)
1995	66.9	102.9	16.5	61.6	24.7	59.8
2000	112.9	232.1	51.0	137.2	45.2	59.1
2001	125.4	234.0	61.5	139.6	49.0	59.7
2002	155.1	285.8	75.4	180.9	48.6	63.3
2003	201.0	431.6	102.3	291.8	50.9	67.6
2004	278.1	621.7	154.4	452.3	55.5	72.8

자료 : 중국해관통계

- 중국의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 수출 구조

- o 가공무역 과정에서 중국내 외자계기업들은 중국내 생산에 필요한 부품, 반제품 등의 중간재를 한국, 일본, ASEAN 등 주변국으로부터 조달하여, 중국내에서 가공한 후 미국과 EU지역으로 수출하는 비즈니스 패턴을 유지하고 있음.
- o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중국의 한국으로부터 수입 중 가공무역용 수입이 5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연간 320억 달러에 이름.

< 무역방식별 비중 추이 >

(단위 : 억 달러, %)

		2001	2002	2003	2004
중국의 대한국 수출	총 액	125.4 (100)	155.1 (100)	201.0 (100)	278.2 (100)
	일반무역	67.6 (53.9)	85.6 (55.2)	108.6 (54.0)	140.9 (50.6)
	가공무역	57.8 (46.1)	69.5 (44.8)	92.5 (46.0)	137.3 (49.4)
중국의 대한국 수입	총 액	234.0 (100)	285.8 (100)	431.6 (100)	622.5 (100)
	일반무역	99.0 (42.3)	129.8 (45.4)	206.9 (47.9)	274.5 (44.0)
	가공무역	124.9 (53.3)	144.4 (50.5)	207.4 (48.0)	320.3 (51.5)
	투자용 설비	10.1 (4.4)	11.6 (4.1)	17.4 (4.1)	27.9 (4.5)

주 : ()은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주간 무역리뷰, No. 152, 2005.3.28, p6.

- 중간재 중심의 대중국 수출구조

- o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의 88.8%에서 2004년에는 79.7%로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한국의 전체 수출구조와 전세계의 수출상품 구조와 비교할 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지나치게 중간재에 편중되어 있음.

<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중국 무역 구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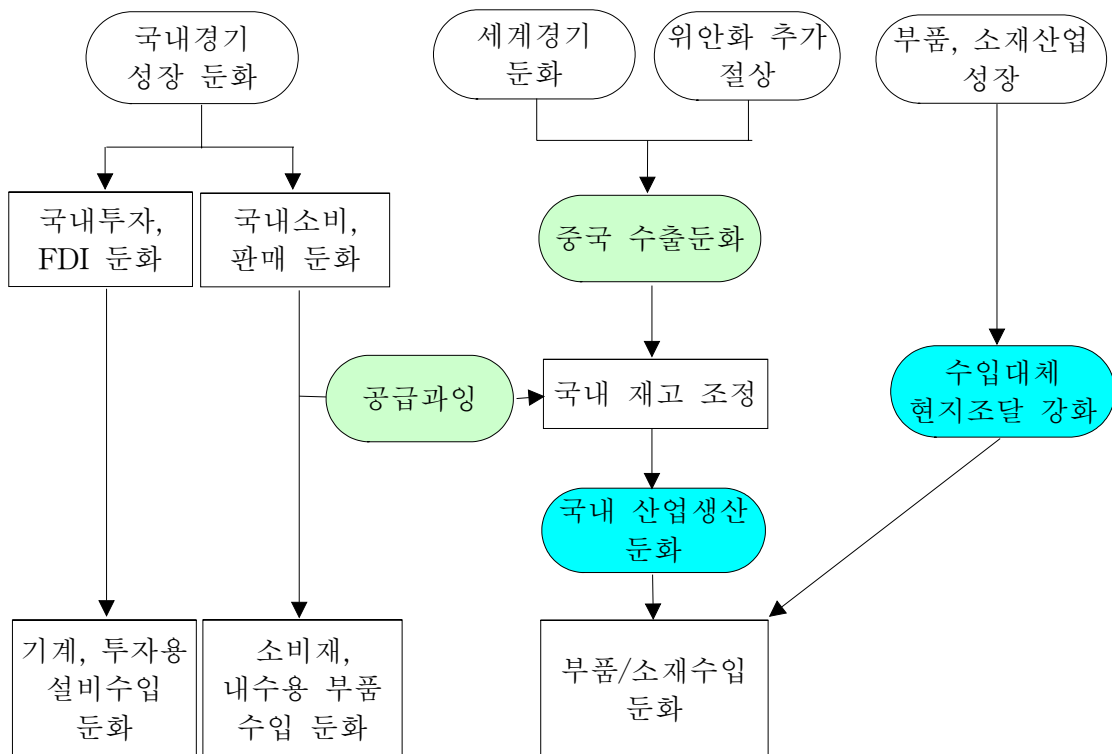
	대중 수출		대중 수입		한국수출	세계수출
	1992	2004	1992	2004	2004	2003
전 품 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차상품	0.4	0.6	37.1	9.1	0.4	8.3
중 간 재	88.8	79.7	50.3	52.8	55.5	51.0
반제품	84.0	43.9	48.6	34.2	29.2	30.3
부품 및 부분품	4.8	35.8	1.7	18.6	26.3	20.8
최 종 재	10.7	19.7	12.6	38.1	44.1	40.5
자본재	7.3	16.2	2.6	18.4	26.2	15.0
소비재	3.5	3.5	10.0	19.8	18.0	25.6
기 타	0.0	0.0	0.0	0.0	0.0	0.1

자료 : 한국무역협회 DB(www.kita.net), UN, PC-TAS 등을 이용 작성

□ 한국의 대중국 수출 구조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중국내 외자계 기업의 중국내 경영여건 변화에 따른 외자기업의 생산이 활성화되는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o 특히 중국내 한국계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는 경우 대중국 수출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임.
- 우리나라 대중 수출의 80%를 중간재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국의 수출 특히 중국의 가공무역의 성장 여부에 영향을 받게 됨.
- 중국내 투자와 소비 등 국내경기가 활성화되는 경우 생산을 유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도 증가하게 될 것임.

< 대중국 수출 환경의 변화 요인 >



자료 : 무역연구소 작성

II. 中國經濟 및 對中 비즈니스 리스크

1. 2006년 經濟政策 方向

□ 成長과 均衡의 同時 達成을 위한 정책 기조 유지

※ 一穩一擴(생산과잉을 해소하고 수요를 확대)

- 2006년은 11차 5개년계획(2006~2010년)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하여 경제정책기조를 양적 성장에서 지역간, 계층간 균형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도모

- 도시와 농촌간, 지역(省)간 균형발전을 통해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
- 소비확대를 통한 투자에 의존적 성장 탈피 추구
- 과잉산업부문의 생산조정, 투자억제를 통한 공급과잉 해소
- 에너지 및 자원 부족 해소를 해외진출과 소비규제 강화
- 무역수지 흑자 축소를 통한 위안화 절상압력과 통상압력 축소

<중국 경제의 예측 총괄표>

		실질GDP	CPI	고정자산 투자	소비재 소매총액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억달러)
2001		7.5	0.7	13.1	10.1	6.8	8.2	226
2002		8.3	-0.8	16.9	8.8	22.7	21.2	304
2003		9.5	1.2	26.7	9.0	34.6	39.9	255
2004		9.5	3.9	25.8	13.3	35.4	35.8	320
2005	연간p	9.4	2.0	25.0	13.0	30.9	20.0	1,030
	1Q	9.4	2.8	22.8	13.7	34.9	12.2	166
	1H	9.5	2.3	25.4	13.2	32.7	14.2	396
	1-3Q	9.4	2.0	26.1	13.0	31.3	16.1	683
2006p		8.9	2.0	20.0	12.5	22.0	25.1	1,050

* 전망은 주요 기관의 전망치를 기초로 무역연구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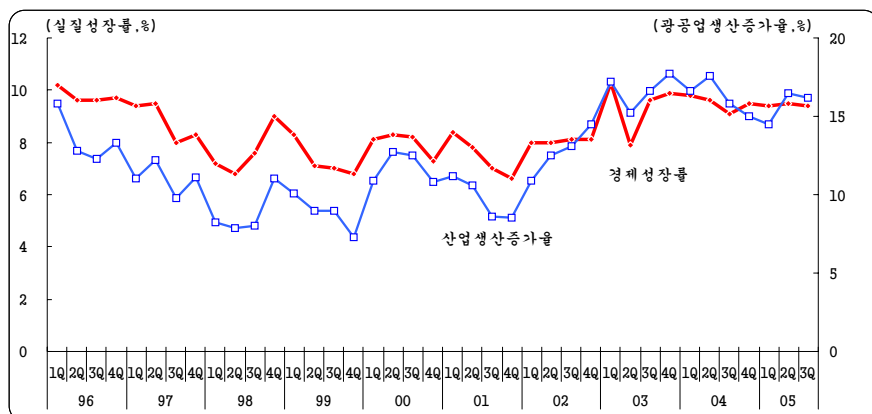
2. 2006년 中國經濟 展望

(1) 경제성장

□ 국내 투자, 소비, 수출의 3대 요인 호조로 3년간 9%이상 고성장 유지

- 2005년 1~9월 중 중국경제는 수출, 투자, 소비 등 3대 수요의 호조로 9.4% 성장률 유지
 - o 3/4분기 성장률은 9.4%로 2003년 3/4분기이후 9 분기 동안 9%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함.
- 04년 하반기~05년 상반기까지의 재고조정으로 둔화되었던 광공업 생산도 2/4분기이후 투자 확대와 수출호조에 힘입어 상승세로 전환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과 산업생산증가율 추이>



자료 : Kita China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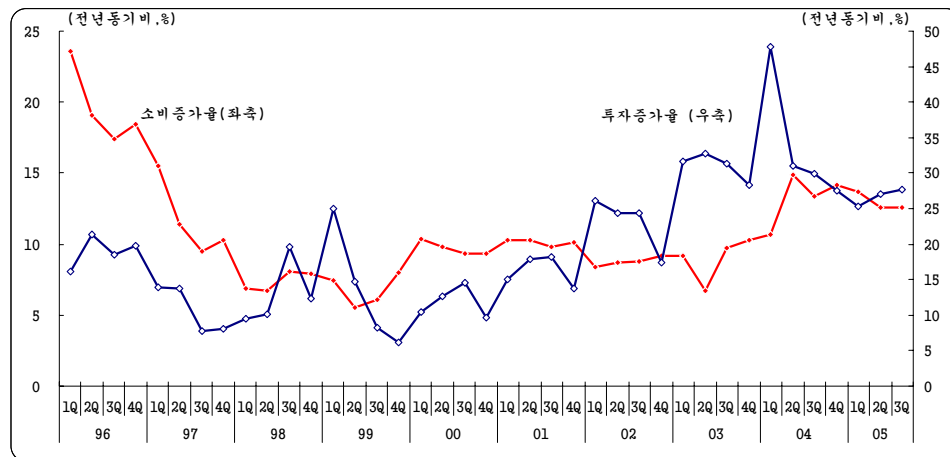
□ 消費와 投資의 호조가 성장을 지지

- 1-9월중 국내소비(소비재 소매총액)는 13% 증가하여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음.
- 1-9월중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비 26.1% 증가, 증가율은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1.6%p 하락하였으나, 1/4분기와 상반기에 비해서는 각각 3.3%p, 0.7%p 상승함.

- o 부동산투자는 억제효과나 현재화되고 있는 반면, 전체 투자는 1/4분기를 저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됨.

<분기별 소비와 투자 증가율 추이>



자료 : Kita China DB

-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세 지속

- o 1-10월중 중국의 외국인투자 실행액은 48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2004년 1-10월 실적 발표치(538억 달러)에 비해서는 10% 감소
- o 국가별로는 일본(54.29억 달러로 15.1% 증가)과 독일(13.56억 달러로 45% 증가)을 제외한 모든 국가로부터의 외국인투자가 감소하였으며,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는 39.2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3% 감소

□ 2005년 9.4%, 2006년 8.5~9% 범위내의 성장률 유지 전망

- 4/4분기중 성장률이 소폭 둔화된 9%내외를 유지함으로써 2005년 중국의 연간 성장률은 9.4%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11.5계획의 초년으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 추진이 본격화되고, 거시 경제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은 2005년에 비해 완만한 감속 기조 유지
 - o 2007년에도 2008년 올림픽 개최를 위한 투자와 소비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높은 성장률 유지 전망

<주요 기관별 중국경제 전망>

	시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CPI)	
		2005	2006	2005	2006
중국인민은행	05.11	9.2	8.7	2.0	-
중국사회과학원	05.10	9.4	8.9	0.9	1.2
거시경제연구원	05.10	9.2	8.5	-	-
World Bank	05.11	9.3	8.7	2.0	2.0
IMF	05. 5	8.8	8.2	-	-
U N	05.11	9.2	8.3	2.4	2.7
J.P. Morgan	05.10	9.3	8.8	-	-
Goldman Sachs	05.10	9.4	9.0	-	-
Morgan Stanley	05.10	9.3	6.7	-	-
Citi	05.10	9.3	8.0	-	-
Deutsche Bank	05.10	9.2	8.3	-	-
SRI (일)	05.10	9.2	8.8	2.5	2.5
UFJ (일)	05.11	9.3	9.3	-	-

자료 : 각 기관 자료로부터 정리

(2) 국내소비

□정책방향(擴) : 잠재소비력 발굴과 확대

- ‘穩房促車(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자동차 구매를 촉진)’정책을 통해 도시 주민들의 부동산과 자동차의 소비수요 확대
 - o 경제형 자동차의 소비세율 인하
 - o 中·低급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가격인상 억제
-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리 완화, 독점 타개를 통하여 서비스의 가격인하를 유도
 - o 저렴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가처분소득 증대

- 농촌에 대한 자금투입을 확대하고 농민소득의 안정적인 증가 확보
 - o 농촌 인프라시설을 개선하여 노동생산력 제고
 - o 농촌 의무교육 무료정책을 실시하여 농민부담 절감
 - o 농민들의 농업세 면제('05년 28개 지역(省市) 면제, '07년까지 전지역 면제 예정) 등 농민부담 경감조치 시행
- 공공재정 확대 및 세제개혁을 통한 저소득층 부담 경감 추진
 - o 중국의 민간 저축률 상승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따른 미래의 불안감에 기인한다는 인식에서 사회보장적 성격(건강, 교육 등)의 공공지출 확대
 - o 소득불평등 해소 및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위한 조세제도 개혁 추진
 - ※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개인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05년 1월 1일부터 중국의 개인소득 기초공제액을 현재의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상향 조정기로 결정
 - ※ 스톡옵션에 대한 tax 부과 (05.7)
 - ※ 단일 조세징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일 조세납세자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global income tax 징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

□ 소비재 소매총액 : 금년(13.0%)과 비슷한 12.5% 대 전망

- 소득수준 향상으로 소비재 소매총액이 내년에 6.8조 위안으로 올해 예상치 6.1조 위안보다 12.5% 내외의 증가율 유지 전망
 - ※ 개인소득세 공제기준 향상(800위안 ⇒ 1,600위안)
- 도시민의 소득향상과 소비대출 확대로 식품·의류·가전제품 등 소비재 구매 확대 예상

(3) 투자

□ 정책방향(穩) : 투자 억제를 통한 공급과잉 조정

- 2006년 투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 과잉이 재발할 가능성이 큼.
- 과잉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규제 및 구조조정의 추진
 - o 자동차 분야의 신규 생산라인 건설 제한 및 기업간 M&A 추진
 - o 핸드폰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및 통폐합 추진
 - o 부동산분야 투자 및 대출의 지속적 규제
- 재정 및 금융지원을 통한 투자방향의 전환
 - o 재정부, 생태환경 보호 및 개선 투자, 빈곤지역의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투자, 기술진보와 하이테크기술 산업화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동 분야 투자에 대해 금융기관의 장기대출 이자율 범위내에서 이자를 보조한다는 방침 발표 (11.4)
- 에너지 절약을 위한 조세제도 개혁 추진
 - ※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정제업자와 생산자에 대해 리터당 0.1-0.2위안의 '에너지소비세' 부과 (05.9)에 이어 내년에는 대형 승용차와 SUV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 추진(06년)

□ 투자 : 20% 내외로 2005년(25% 내외) 보다 둔화 전망

-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이 지속되면서 내년에도 신장세가 둔화될 전망
 - o 증가율 추이 : 27%('03년) ⇒ 25.8%('04년) ⇒ 23%('05년 예상) ⇒ 20%('06년 전망)

- 그러나, 대형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o 내년은 '11·5(11차 5개년 계획)' 시작의 첫해로써 정부의 일부 대형 프로젝트 발표가 예상됨(예상프로젝트 : 南水北調 2기(호북성⇒북경), 동남아를 경유하는 국제철도)

o 중국정부의 투자 억제정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단점도 내년도 투자 규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임.

※ 투자 재원별로는 중국정부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금융기관 대출에 의한 투자는 15.2%, 국가 예산에 의한 투자는 21.1% 증가한데 그친 반면, 자기자금에 의한 투자는 36.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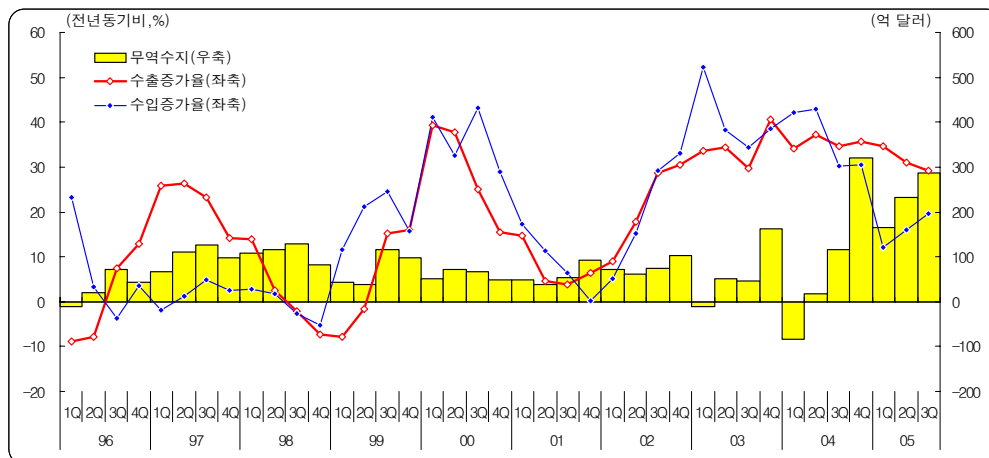
(4) 수출입

□ 수출증가율은 둔화, 수입증가율은 상승세로 전환

-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3년 4/4분기를 정점으로 점진적인 하락세가 지속되어 4/4분기에는 2002년 3/4분기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o ('05년 1Q) 34.7% → (2Q) 30.9% → (3Q) 29.1%

<분기별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자료 : Kita China DB

- 반면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던 수입증가율은 1/4분기의 12.2%를 저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어, 3/4분기 중에는 19.6%로 급 상승
-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대폭 확대된 것은 환율요인, 경쟁력제고 요인, 경기순환적 요인 등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o '01년 이후 중국 위안화의 상대적 평가절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제고
 - o 중국의 WTO 가입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입이 확대와 동시에 중국경제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수출경쟁력이 제고
 - o 2004년 긴축조치 이후 국내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국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수출 확대

□ 수출입 : 2005년, 2006년 무역수지 흑자 1,000달러 내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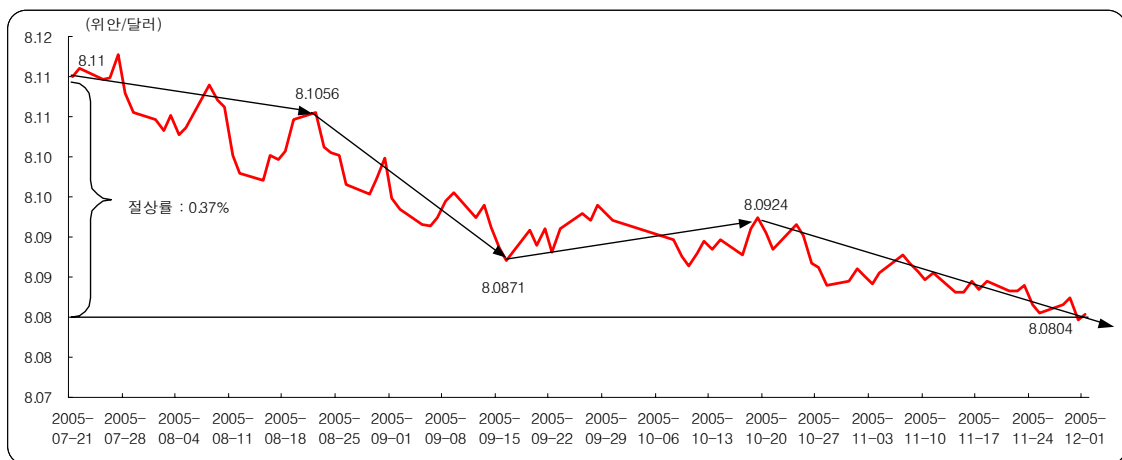
- 수출상품의 고도화, 중-ASEAN FTA 발효에 따른 효과로 중국의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2005년의 특수한 현상에 따른 수출증대요인이 줄어들면서 수출증가율은 둔화 전망
 - o 환율요인에 의한 수출 증대는 점진적 절상이 이루어지면서 효과 축소 전망
 - o 국제유가 인상으로 수출기업의 원부자재 부담이 증가하고 수출세 환급률 조절로 일부 상품의 수출 둔화
 - o 내수시장의 회복, 재고의 부분적인 조정으로 재고조정을 위한 수출은 둔화 전망
- 원자재 가격 상승, 대중 통상마찰 완화를 위한 수입 확대, 수출용 원자재 및 부품 수입 확대로 수입증가율은 2005년에 비해 높아질 전망
 - o 2006년 중국의 수입은 내수용 제품이 수입증가율이 수출용 부품과 중간재 수입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무역흑자는 2005년 1,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2006년에도 금년과 비슷한 1,000억 달러 내외의 흑자 유지 전망

(5) 위안화의 추가절상 압력

□ 위안화 단일화 이후 소폭 절상

- 위안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7월 21일 평가절상과 통화바스켓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인 절상추세 유지
 - o 11월 25일 위안화 환율은 8.0805위안으로 7월 21일 이후 0.37%가 절상
- NDF 시장의 1년물 환율은 평가절상 시점의 7.7100위안에서 10월 31일에는 7.7920위안으로 당일의 공식환율에 비해 3.6% 절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 2005년 8월 15일부터 시작된 은행간 선물시장에서도 이날 1년물의 선물 환율은 7.7950위안으로 마감됨.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 동향>



- 중국의 무역수지 확대,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확대는 중국 위안화에 대한 추가적 절상압력으로 작용 전망

<미국의 對中 무역수지>

(억 달러,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1~9
무역적자(A)	4,365	4,109	4,703	5,357	6,531	5,549
대중적자(B)	838	830	1,031	1,240	1,620	1,463
B/A(%)	19.2	20.2	21.9	23.1	24.8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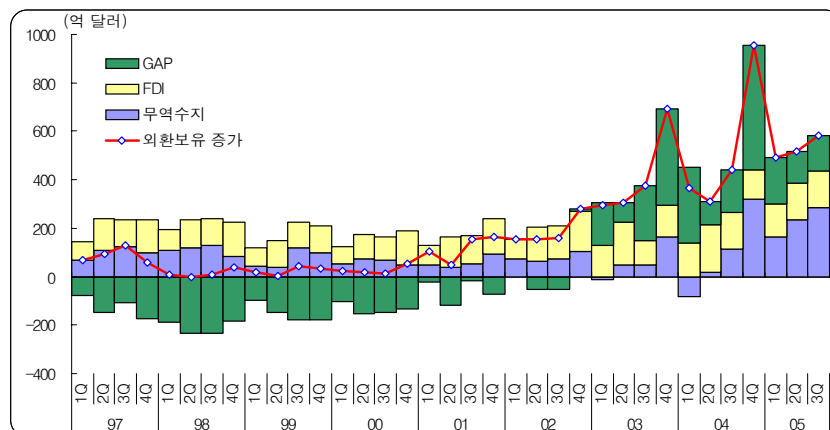
자료 : www.kita.net

- 중미간에 《방직품 및 의류 무역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로 양국간의 가장 큰 통상이슈의 하나가 해결됨.
- ※ 2008년까지 미국이 21개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해 쿼터를 유지하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함
- ※ 섬유쿼터 증가율 : 2006년 10-15%, 2007년 12.5-16%, 2008년 15-17%

□ 과도한 외화유입에 따른 금융시장 교란

-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 외국인투자 유입, Hot money 유입에 따른 과도한 외화유입에 따른 금융시장 교란 및 통화증발 가능성 상존
- o 위안화 평가절상이후 핫머니 유입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투기성 자금 유입은 지속되고 있음.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 분해>



□ 위안화의 1일 변동폭(band) 확대와 점진적 소폭 절상 허용 전망

- 후진타오와 부시 간 정상회담(11.20)에서도 중국의 위안화 추가절상 압력에 대해 중국은 점진적인 환율제도의 개혁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으며, 미국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음.
- 내년 연말까지 3%내외의 추가 절상 전망이 지배적

< 주요 투자은행의 위안화 환율 전망 >

예측 기관	(전망일자)	2005		2006		
		4/4	절상폭	2/4	4/4	절상폭(2005년말대비)
HSBC	(11.11)	8.05	1% 내외	7.90	7.85	3% 내외
UBS	(11.14)	8.00	"	7.90	7.80	3% 내외
Deutsche Bank	(11.11)	8.00	"	-	-	-
Lehman Brothers	(11.11)	7.90	2% 내외	-	7.20	9% 내외
Citigroup	(10.28)	7.95	"	7.83	-	-
Morgan Stanley	(11.10)	8.05	1% 내외	7.90	7.80	3% 내외
JP Morgan	(11. 9)	7.87	3% 내외	7.43	7.00	11% 내외
Merrill Lynch	(11.14)	7.91	2% 내외	-	7.12	10% 내외
Goldman Sachs	(11.11)	8.00	1% 내외	-	-	-

< 위안화 절상관련 중국과 미국의 입장 >

□ 중국 정부는 일시적인 절상 보다는 중장기적인 점진적 절상을 선호

- 人民銀行 吳曉靈 副총재, 일일 위안화 환율보다는 환율제도의 개혁이 더욱 중요하다는 견해 시사 (11.3)
 - o 동 부총재 “환율 개혁의 초점은 환율제도 개혁에 있어; 환율이 어떻게 변동하던지, 이는 시장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언급
- 人民銀行 余永定 정책위원(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장), 위안화 환율에는 더 한층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시사; “中 수출업자들은 통화가치 변동성(Volatility) 및 美 달러에 대한 위안화의 장기적 절상에 대응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 지적
- 人民銀行 副총재 (上海 總본부 주임) 項俊波, 향후 적절한 시기에 위안화 對 美 달러 환율 변동 폭을 조정하여 위안화의 환율 및 금리 형성 제도의 완성(完善)에 진일보(進一步)할 것“ 언급
 - o 향후, 위안화 환율은 다시금 당국이 공식적으로 일괄 조정하는 일은 없이, 시장 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할 것이며, 건전한 시장 환율제도의 건립(建立)에 주력할 것임.
 - 동 발언은 지난 7월 실시한 것과 같이 위안화를 절상하는 일 없이, 시장 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임

□ 미국은 추가적인 위안화 절상 조치를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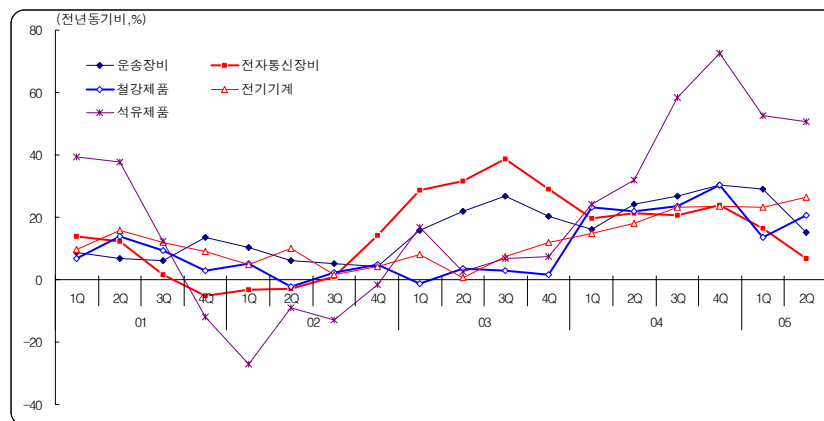
- 美 Snow 장관, 위안화 관련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胡 주석 및 溫 총리 등과의 회담에서는 7월 위안화 소폭 절상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10. 28)
 - o 동 장관은 美 의회 압력은 7월 2.1% 절상으로 일시 진정되었으나 11월 18일 이후 압력이 가중될 전망” 경고

3. 産業生産 動向과 展望

□ 중국내 공급과잉에 따른 재고 증가

- 2005년 하반기에 70%의 공산품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
- o 2004년 하반기이후 중국내 재고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주요 공산품의 재고증가율은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 주요 제조업종의 재고액 증가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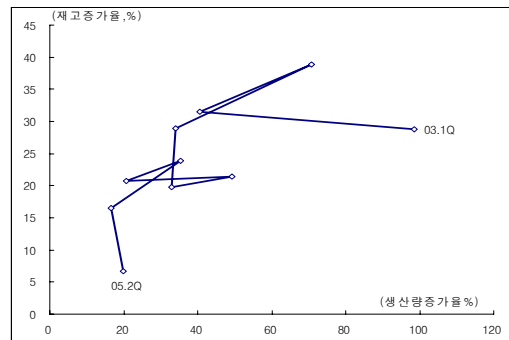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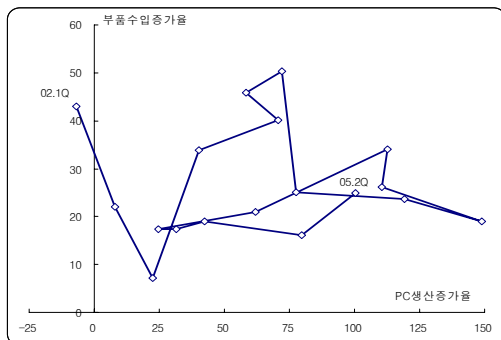


- 국내 재고해소를 위해 국내의 생산을 축소하고, 수출을 확대하여 왔으나, 높은 재고증가율이 유지되면서 신규 시설 투자와 기존 기업에 대한 정리 필요성이 증대됨.
- 따라서 2006년에는 중국내 과잉조정을 위한 투자규제와 기업 구조조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
 - o 자동차 관련 신규 투자 및 확장 투자 제한 조치 발표
 - o 신식산업부, 중국내 휴대폰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휴대폰 업체의 정리정돈 작업 및 신규 진입 강력 제한 조치 발표 (11.4)
 - ※ 중국 신식산업부, 현재 67개(2004년말 38개사)에 달하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 중 향후 3년내 20여 업체를 정리/통폐합 추진 예정

□ 2004년 하반기이후 컴퓨터 및 부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재고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생산과 수입증가율이 둔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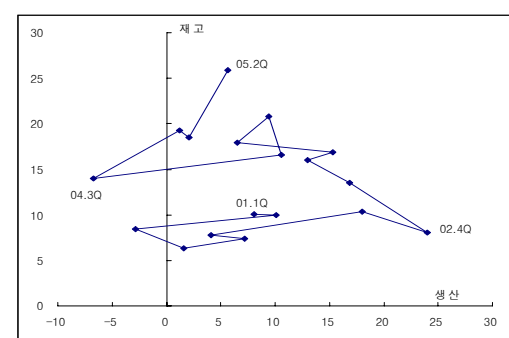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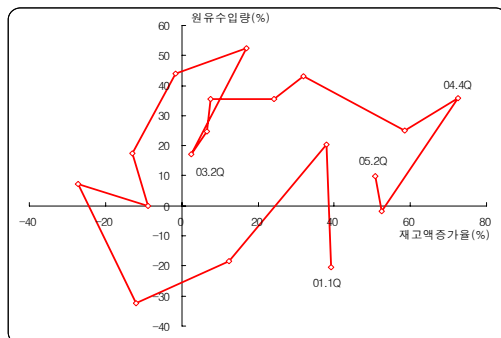
< 중국의 주요 품목별 시장 동향 >

- ① 중국의 컴퓨터 생산과 부품수입 관계 ② 통신장비 재고액 증가율과 휴대폰
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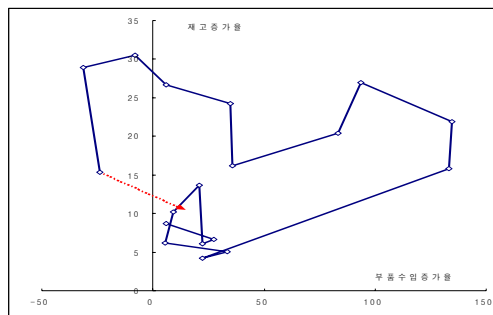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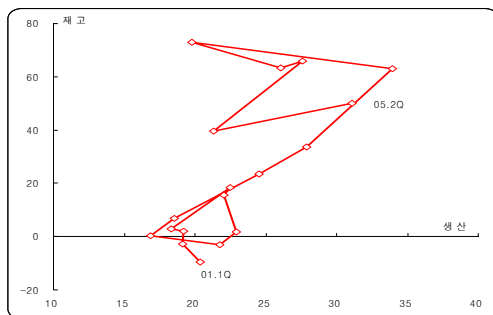
- ③ 원유수입량과 석유가공산업 재고액

- ④ 플라스틱제품 재고와 에틸렌 생산



- ⑤ 철강산업 재고와 생산량 증가율

- ⑥ 운송장비 재고와 자동차부품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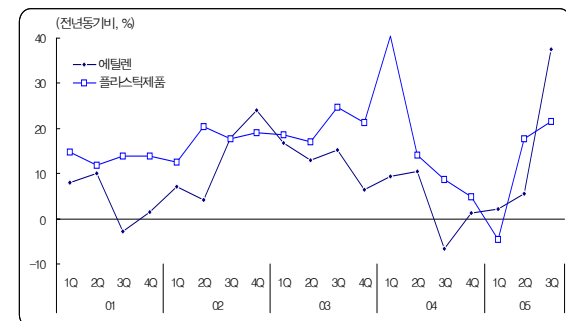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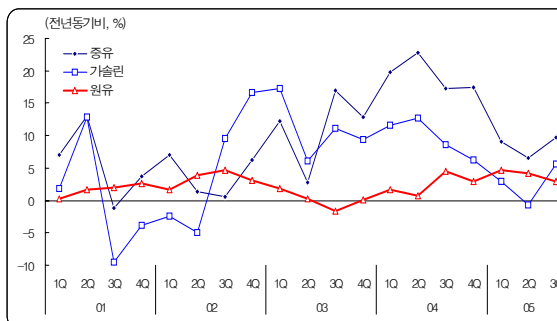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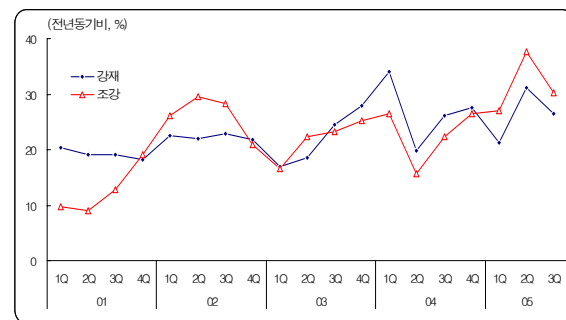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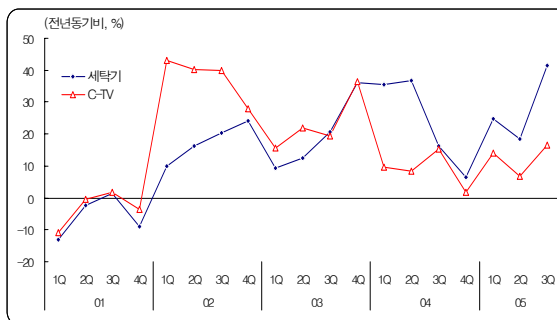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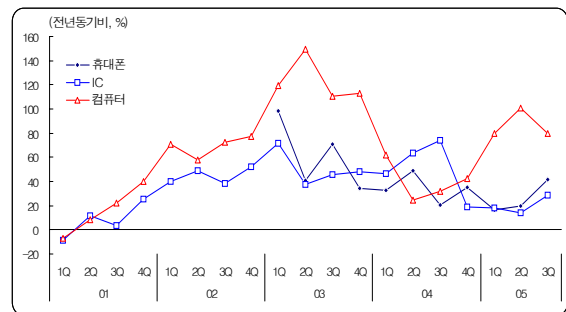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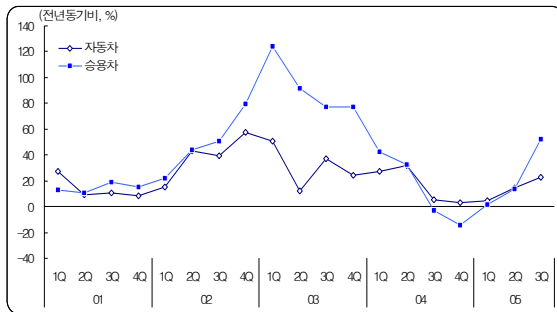


□ 중국의 주요 공산품 생산 증가율은 2005년 2/4분기를 저점으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됨.

- 2004년 하반기 이후 국내의 과다 재고 조정의 필요성, 경기안정 조치 등으로 주요 공산품의 생산증가율이 지속적 하락세를 유지하였으나, 대부분의 공산품 생산 증가율이 2/4분기를 저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됨.

- 철강제품과 컴퓨터는 2/4분기를 정점으로 증가율 둔화세 유지

<주요 공산품 생산량 증가율 추이>



- 중국내 생산 증가가 3/4분기 이후 원자재 및 부품 수입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6년 상반기까지 지속된 후 다시 조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큼.

<중국의 주요 품목별 시장동향 및 2006년 전망>

품 목	최근 시장 동향	2006년 전망
컴퓨터 및 부품	- 3/4분기이후 생산증가율 둔화 - 수출 및 국내 판매 호조 - 컴퓨터부품 수입 견조한 증가세	- PC : 국내수요, 수출 호조 - 부품수입 : 증가세 지속
휴대폰 부품	- 휴대폰 : '04년 3/4분기이후 핸드폰 신규 가입자 마이너스 증가율(05년 1-9 16.1% 감소) - 부품수입 증가율 둔화	- 핸드폰 : 내수시장 호전, 수출 증가율 둔화 전망, 공급과잉 해 소를 위한 구조조정 시작 - 부품수입 : 증가율 둔화 전망
직접회로	- 남부지역 전자업체 구조조정 추진 → 국내 IC수요 증가율 둔화 - PC용 디지털반도체 수입 호조, 기 타 반도체 수입 감소	- PC생산 호조, 휴대폰 생산 소폭 증가로 IC 수입증가율 소폭 상 승 전망
석유제품	- '04. 3Q~'05년 원유재고 조정 - 3/4분기 이후 석유제품 생산 증가 율 상승세 반전 - 상반기 석유제품수입 감소	- 석유가공업의 높은 재고증가율 (50%이상) 지속 - 석유제품 수입 소폭 증가
합성수지	- 상반기이후 에틸렌, 합성수지제품 국 내생산 대폭 증가 - 자급도 상승:98년 40%→04년 52% - 04년 하반기이후 수입 감소	- 합성수지 재고 증가세 - 수입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강재	- 3/4분기이후 생산증가율 소폭 둔화 - 수출 확대로 국내 재고 축소 - 강재수입 : '04.2Q이후 감소세 지속	- 국내 투자 둔화에 따른수요 부 진→ 높은 재고증가율 지속 → 철강재 수출 지속 확대 - 강재수입 증가 기대 어려움
자동차 부품	- 2/4분기이후 승용차 생산 증가세로 전환 - 상반기 부품수입액 감소 : -27.1%	- 과잉공급 억제 위한 신규 설비 투자 제한 - 자동차 생산 소폭 증대 전망 - '06. 7 완성차 관세 25%로 인하 로 국산과 수입차간 경쟁 심화 - 자동차부품 수입 증대

4. 現地法人の 經營 リスク 評價

(1) 외자기업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 중국정부가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단기 외채 총량을 규제하고, 외자기업의 대출총액을 제한함으로써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중국내 외자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중국정부는 '04. 5월 긴축조치 이후 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외채 관리 강화정책을 시행

- '04. 7 : 외채한도 범위에 1년 이하의 단기차입금 포함

- '05. 4 : 외채한도 범위에 해외지급보증부 국내 차입금 포함

※ 2005년 4월 이전까지는 본사 지급보증부 차입가운데 외화 차입에 대해서는 외환관리국 등기를 밟을 필요가 없었으나 4월 이후부터는 인민폐 차입, 외화 차입에 관계없이 모두 외환관리국에 신고, 등기절차를 밟도록 규정(國家外匯管理局關於外匯担保項下人民幣貸款有關問題的補充通知, 2005.4.15 발표)

- 지난 5월 10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위안화 절상을 기대한 투기성 자금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외국계 은행들의 단기 해외차입 규모를 348억 달러로 총량 제한할 것임을 발표

o 아울러 2005년 중국계 은행과 일부 비은행 기업들의 해외 단기차입도 244억 달러로 제한

□ 대중 투자기업의 대출 한도를 제한

- 대출한도 = ① 총투자액 - ②등록자본금- ③여타 외채(1년이하 단기차입금 포함) -④해외지급보증부 채무

☞ 우리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 중국 투자기업이 중국내 은행(국내은행 지점 포함)으로부터 차입한 본사 지급보증부(Stand by L/C 포함) 대출금이 새로이 외채한도에 포함됨으로써 한도초과 사례 발생
 - o 한도초과 대출금은 만기도래시 상환 또는 자본금 증자를 통해 한도 초과분을 해소해야 됨.
-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중국 내 국내 은행 현지점포가 거래하는 우리나라 업체는 1,009개이며 총 대출금은 18억 2천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차입한도를 이미 초과한 업체는 345개(34.2%)이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약 5억 2천만 달러(총 대출금의 28.5%)
- 차입한도를 초과한 업체는 만기 도래 시 차입금 상환 또는 자본금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
- 따라서 충분한 자기자본 없이 차입에 의존해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벌여온 영세 업체 및 중소 무역업체의 경우 현지 자금조달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2) 외자기업에 대한 조세 징수 강화

□ 이전가격 조사 강화 가능성

- 중국 국가세무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하고 있다고 보고, 조사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한국 기업들도 중국에 투자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조세감면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어 이전가격 조사 대상기업이 될 가능성이 큼.
- ※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누계 25만개로 이중 51%가 적자업체이며, 과세회피 규모는 연간 300억 위안을 훨씬 웃돌고 있다고 발표 (신화사 11.2일자)

<외자기업 조세회피 유형>

(국가세무총국, 신화사 2005년 11월 2일자)

- 왕위강(王裕康) 국가세무총국 국제세무사(司) 부사장, 세무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적자를 내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실제로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일부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은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허위로 적자 신고를 하고 있다고 언급

- o 다국적기업의 세금회피 행위로 볼 때 중국은 성숙한 시장감독관리체제와 세수체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절대 다국적기업이 자율성에 기대를 걸어서 안 된다고 경고

① 해외 모회사와 거래를 한다.

- 수출입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이용해 국제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료를 수입하고, 마찬가지로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수출하는 ‘고가 수입, 저가 수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늘어난 비용으로 적자장부를 만들고 이윤은 해외로 이전시킨다.

② 모회사나 관련기업에 거액의 로열티를 지불한다.

- 거액의 상표 사용료가 전형적인 예이며, 기술 사용료, 특허 사용료 등도 이에 포함된다. 국제관례에 따라 해외로 로열티를 지불할 경우, 10%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면세기간에 있는 기업은 상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납부한다 해도 10%는 비교적 낮은 세율이다. 따라서 기업은 관련기업에 거액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늘리고, 수익 수준이 미비하거나 적자를 낸 것처럼 해 세금을 피하고 있다. 이밖에 해외에서의 노무는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모회사에 검사비, 재무제표 전환비 등 복잡한 명목의 해외 대리상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늘이고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다.

③ ‘자본약화’ 방식으로 해외에 거액의 이자를 지불한다.

- 대출금과 등록자본 사이에 합리적인 유지 비율이 있으나 일부 재중 외국인투자기업은 원가를 늘리기 위해 모회사나 해외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고 거액의 이자를 지불해 장부상 이익을 줄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등록자본금은 100만위안에 불과하지만 2,000만위안 심지어 3,000만위안을 대출하는 기업도 있다.

④ 면세지역(tax paradise)을 통해 세금을 회피한다.

- 영국령 버진제도(British Virgin Islands), 케이만 군도 등 완전면세국에서 기업 등록 혹은 기업이전을 실시하고 이윤을 이곳에 남겨두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완전면세국 기업의 명의로 원자재, 상품, 특허기술, 노동력 등을 저가에 매입한 후 이를 고가에 판매할 경우, 거액의 이윤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 외국 국적 종업원의 개인소득세 이슈화 가능성

- 중국정부가 세수원의 확보,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징수 강화를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국 국적 종업원의 개인소득세 이슈화될 가능성이 큼.

□ 소득세 단일화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 가능성

- 중국정부는 내년중 외자기업 소득세율과 중국기업의 소득세율을 단일화(兩稅合一)하는 법안을 상정하여 내후년부터 실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중국의 통일된 기업소득세율은 대체로 24% 내외가 될 것임.

(3) 코스트 상승 요인

□ 임금상승,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중국내 코스트 상승요인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조화사회 건설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양로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금 징수 강화
 - o 11.5기간 중 도시지역에서 5대 보험(연금, 의료, 실업, 산재, 생육)을 완성한다는 목표 제시

< 주요 비용의 상승 요인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1~9
임 금	전산업	12.8	16.0	14.3	13.0	14.1	-
	제조업	12.9	11.7	12.6	13.6	12.3	-
에너지가격		14.3	-8.7	9.8	6.8	18.0	21.3
환율 상승		-	-	-	-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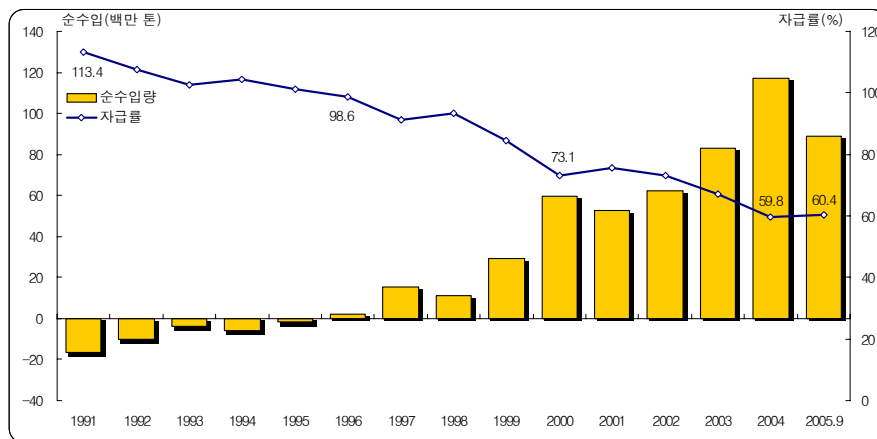
□ 중국의 원유 부족에 따른 유류세 인상 불가피 전망

- 1996년이후 매년 원유 수입량은 25%씩 증가, 원유수입액은 1998년 32억 달러에서 2004년에는 339억 달러로 증가.
 - o 국내수요 축소와 자동차 판매부진으로 금년 1~9월중 원유 수입량은 4.3% 증가에 그쳤으나, 수입액은 343억 달러로 45.2% 증가 (도

입 단가는 전년동기대비 39.2% 상승)

- 중국의 원유 자급률은 60%로 하락하였으며, 2020년에는 40%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중국의 원유 순수입과 자급도 추이>



- 원유 소비 억제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유류세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큼.
- ※ 중국은 무연gas 0.28위안/리터, 유연gas는 0.20위안 소비세 부과

□ 환경오염 관리 강화에 따른 환경관련 투자 비용 증대

- 11.5계획기간중 자원효율성 20% 개선 목표 발표로 자원절약 설비 투자와 환경관련 비용 증대 예상

□ 부가가치세 환급률 조정 가능성/ 수출쿼터 확보 등

- 중국내 가공무역가 외자기업에의 수출 편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에 따른 관리 강화 가능성 증대
- ※ 세관 통계사 장리추안(張麗川) 사장은 중국 무역발전 4대 걸림돌로 ① 가공무역 방식에 대한 지나친 편중, ② 수출무역성장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 ③ 기업의 환리스크 증가, ④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 상승을 지적 (11.20)
- 섬유제품의 대미, 대EU 수출 쿼터 확보의 어려움

Ⅲ. 對中 輸出에의 影響과 展望

1. 對中 輸出與件 評價

□ 지표상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비즈니스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

< 2006년 대중국 수출환경 평가 >

항 목	주 요 환 경 변 화	대중수출
경제성장	-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긍정적
산업생산	- 주요 산업의 생산 증가율 상승세 - 일부 산업의 재고 조정, 기업 폐쇄, 신증설 규제에 따른 산업생산 위축 - 경쟁심화, 철강 등의 공급과잉 지속 - 한국계 기업의 생산 위축 가능성(수출기업)	부정적 > 긍정적
투 자	- 투자증가율 둔화/부동산 투자의 지속적 억제 - 북경 올림픽 준비 투자 - 11.5 계획 관련 환경, 사회 인프라, 하이테크 분야 투자 증대	중립적
소 비	- 소비세 인하, 소비금융 부활 가능성 - 농민부담 경감, 저소득층 소득증대 조치 -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소비 위축	긍정적
수 출 입	- 점진적인 위안화 추가 절상 (3~4%) - 선진국의 대중 통상압력 지속 * 섬유류 수출 둔화로 진출기업 경영난 - 수출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 가공무역 차질 - 수입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흑자 축소	부정적 > 긍정적
투자기업 경영여건	- 임금인상 요인 증대 :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장 비용 부담 증가 * 15%정도의 임금상승과 기능인력 부족 - 외자기업 세제혜택 축소(15%→24%) 논의 - 에너지 관련 비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관련 감독 강화	부정적
기타 환경	- 對韓 통상압력 중립적 * 중국의 대한 무역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MES 부여로 호전 예상 - 중-아세안FTA 발효에 따른 경쟁격화 - 전력난(25개 省市), 자원난 심화	중립적

2. 對中 輸出에의 影響과 展望

□ 중국의 수입이 둔화되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도 2004년 2/4분기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함.

- 1-10월중 대중 수출은 510억 달러로 24.6% 증가하여 '04년 1-10월 (46.8%)에 비해 12.2%p 하락

o 그러나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국 수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어 경쟁국에 비해 한국의 대중 수출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은 편임.

※ 1-10월 중국의 국별 수입증가율 : 한국 23.0%, 일본 4.9%, 대만 12.9%, 미국 8.2%

□ 2006년 한국의 대중 수출여건은 금년에 비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생산과 재고조정 완료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로 대중국 부품 수출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요인과 중국의 수출과 투자 둔화에 따른 위협요인이 공존하고 있어 내년중 대중 수출증가율은 금년에 비해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큼.

o 내년중 중국의 수입 증가율은 2005년에 비해 높아질 전망이나, 수출용 중간재 수입 보다는 내수용 중간재와 소비재 수입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부품과 반제품의 중간재가 79.7%, 자본재가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재는 3.8%에 불과함.

o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포함한 외자계 기업의 전반적인 생산 및 경영여건 악화는 대중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2004년도 중국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622억 달러) 중 72.8%인 452억 달러가 중국내 외자계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품목별로는 2006년 대중국 수출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품목별로는 LCD, 자동차부품, 직접회로(IC), 기계류의 대중 수출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휴대폰부품, 컴퓨터부품, 석유제품, 강재 등의 대중 수출여건은 부정적인 것으로 예상됨.

<2006년 주요 품목별 대중국 수출환경 평가>

품 목	중국 수출	수요산업 생산/재고	중국 투자	중국 소비	대중 수출 증가율
휴대폰부품	+	--	○	○	
컴퓨터부품	○	-*	○	+	
LCD	+	+	○	+	
직접회로(IC)	○	+	○	○	
석유제품	○	-	○	○	
합성수지	○	-	○	+	
철강제품	○	-	○	○	
자동차부품	○	+	○	+	
기계류	○	○	+	○	

주) + 긍정적, ○ 중립적 - 부정적 / * 중국진출 한국업체의 생산 중단

대중 수출증가율 : 30%이상 10~30% 10%미만

□ 내년도 우리의 수출 증가율은 금년에 비해 다소 하락한 20% 내외의 증가율을 유지하여 금년에는 600억 달러를 넘어서고, 2006년에는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반도체, LCD, 자동차부품, 기계류 등은 30~40%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합성수지, 철강관, 가정용 전자부품은 10%대, 무선통신기기부품과 컴퓨터부품은 10% 미만의 증가 또는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컴퓨터부품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이 호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생산중단에 따른 영향으로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

3. 示唆點

☐ 2006년 대중국 비즈니스는 ‘기회의 확대’ 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성공률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 우리기업의 주력 투자분야인 노동집약 산업도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 전략을 반드시 구사하여 경쟁력을 Up-Grade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경기둔화에 대비한 해외시장 시장다원화와 금융조달 어려움에 대비한 유동자금 확보 필요

☐ 중국의 재고조정, 산업구조 조정 대상 분야의 대중 수출 위축 대비 필요

- 우리의 주력 대중국 수출산업인 일부 산업에서 또다시 재고가 증가하면서 수입이 둔화되는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 중국내 수출선의 다변화 필요

-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품목의 경우 현지법인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중국 수출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자동차부품, 컴퓨터 부품의 예)
- 이러한 품목의 경우 중국기업 또는 중국내 외자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통해 대중국 수출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무역수지 확대에 따른 위안화의 추가적 절상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위안화의 절상에 따른 대중국 수출증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쟁국 통화 대비 원화환율의 안정성 유지 필요